



## 고려해운

인천사무소 개설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7월1일 경인지역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무소(소장 홍호진)를 설립했다.

이번 인천사무소 설립은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인지역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화물 유치는 물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인천지역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해운은 2004년 2월 인천-상해간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주력항로인 태국항로에서 인천항을 추가로 기항하는 등 경인지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사무소 위치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8층이며 전화번호는 032-883-2800, FAX번호는 032-883-2801이다.

## 대신해운

벌크선 1척 신규 도입

대신해운(대표 함용관)이 지난 7월5일 핸디맥스형 벌크선 4만5,578DWT급 'Bright Future' 호를 도입했다.

2000년에 건조된 신형선인 이 선박은 대신해운의 세 번째 사선으로 독일의 올렌도르프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톤 크레인이 4기가 설비되어 있는 이선박은 현재 독일 선주에게 다시 용선 되었으며 향후 장기 용선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해운은 현재 Bright Future호 외에도

'Bright Queen' 호(4만3,609DWT)와 'Bright Sun' 호(4만7,574DWT) 등 모두 3척의 사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척 정도의 용선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 태영상선

중국천진사무소 개설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컨테이너서비스 확대와 함께 대중국 비즈니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2005년 6월 21일 중국 천진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태영상선은 2003년 6월 인천-청도 컨테이너서비스 개시를 시초로 하여 2004년 6월 부산-북중국항로 컨테이너서비스를 개시하여 대중국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천진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태영상선은 중국지역에서 고객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SK해운

창립 23주년 기념식

SK해운(대표 이정화)은 6월29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6월28일 본사에서 이정화 대표 및 본사 근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정화 대표는 기념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st To-Be Model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2006년부터 적용되는 2nd To-Be Model의 핵심과제로 외형적인 성장의 한계극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경영 Paradigm을 통한 지속적 변화에 적응,



충실한 System 경영,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 치밀한 Risk Management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SKMS를 적극 실천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단단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Global Market에서 인정받는 SUPEX Company를 만드는데 전구성원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창립기념식에서는 석수용 감독 외 5명의 직원에게 SK-Manship상이 수여되었으며,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도 이루어 졌다.

이에 앞서 SK해운은 6월15일 위커킬 컨벤션센터에서 중소협력업체와 상호협력강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협력업체 대표 80여명이 참석하여 상생경영의 취지를 공감하고 향후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화 대표는 SK해운이 협력업체와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SK가 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행복극대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국제해상 운송업계의 경쟁 양상이 개별기업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위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SK 상생경영 “3대 원칙 및 9대 실천 과제”에 입각하여 실질적 실천 방안 모색에 나섰다.

## STX팬오션/흥아해운

북중국-태국, 베트남 공동운항

STX PAN OCEAN과 흥아해운이 7월14일부터 북중국-태국, 베트남 노선을 공동개설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동 노선은 850TEU급 선박 3척이 투입 운영되며 첫 모선으로 M/V CAPE CHARLES호가 7월 14일 방콕을 출항한다.

CTS(China Thailand Service)라 명명되어진 신규서비스는 ‘청도(일/일)-상해(화/수)-홍콩(금/토)-방콕(수/목)-라임차방(목/금)-호치민(일/일)-홍콩(수/수)-청도(일/일)’ 노선을 주1회 운항하며 현재 북중국-태국 양국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TS 서비스는 양사가 지난 5월에 공동 개설한 CIS(China Indonesia Service)에 이은 2번째 공동 운항에 의한 신규 서비스로 CIS 개설 이후 양사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되고 있다는 점 및 양 서비스 모두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STX PAN OCEAN은 컨테이너선 부문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INTRA-ASIA항로에 신규 진출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흥아해운은 중국 시장에서의 컨테이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의 경영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진해운

### 8,000TEU급 신조선 투입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www.hanjin.com)이 8,000TEU급 최첨단 신형 컨테이너선 2척을 아시아-미주 항로에 전격 투입한다.

지난 6월2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8,000TEU급 신형 컨테이너선 한진 보스톤(Hanjin Boston)호와 한진 마이애미(Hanjin Miami)호는 각각 7월10일과 8월7일경부터 중국-미주를 운항하는 PSX(Pacific Express Service) 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하게 된다.

한진 보스톤호와 한진 마이애미호는 한진해운의 8,000 TEU급 시리즈 다섯척 중 첫번째로 투입되는 선박들로 독일 선주인 콘티사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것을 장기 용선 방식으로 확보한 선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선박은 7만7,000DWT로 컨테이너 적재능력 7,455TEU, 길이 300미터, 엔진출력 9만3,000마력, 폭 42.8 미터, 운항 속도 25.2 노트의 최신 경제선이다.

동 선박의 투입으로 성수기 선복량 증대로 늘어

나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물량의 원활한 수송과 대 고객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컨테이너선 대형화 시대를 대비하여 올 연말까지 경쟁력 제고 및 선대 강화를 위해 이번 한진 보스톤호와 한진 마이애미호를 포함하여 8,000TEU급 신조선 5척을 순차적으로 투입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오는 8월부터 롱비치-멕시코-과테말라 간의 새로운 피더서비스를 시작한다.

MGS(West Coast-Mexico-Guatemala Service)로 명명된 동 서비스는 롱비치(Long Beach)를 시작으로, 만자니요(Manzanillo, 멕시코), 푸에르토 케찰(Puerto Quetzal, 과테말라), 만자니요, 엔세나다(Ensenada, 멕시코), 롱비치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118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여 매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진해운은 이 새로운 피더서비스가 기존의 태평양 구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서비스 범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와 화물 수송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해운은 “그 동안 선복입차를 통해 제공했던 이 지역 피더 서비스가 단독운항으로 바뀔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인 면의 향상과 더불어 이 지역의 영업 입지가 강화되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롱비치-멕시코-과테말라 서비스(MGS : West Coast-Mexico-Guatemala Service)의 기항항구는 롱비치-만자니요-푸에르토 케찰-만자니요-엔세나다-롱비치로 투입선박은 1,118TEU급 컨테이너선 2척(Reefer Pluge : 220개)이다.



## 현대상선

### 인도에 '현지법인' 설립

현대상선(www.hmm21.com)이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인도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7월 16일(한국시간) 인도 뭍바이(Mumbai)에서 현지법인(HYUNDAI MERCHANET MARINE INDIA PRIVATE LIMITED) 설립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도법인 설립 행사에는 현대상선 노정익(盧政翼)사장, 오병성(吳炳成)총영사, 윤효춘(尹孝春) KOTRA 뭍바이 무역관장을 비롯해 인도 해운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상선 인도법인의 변창을 기원하는 등불 점화식 및 리셉션 순으로 치러졌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신설된 인도 법인과 산하에 델리(Delhi), 첸나이(Chennai) 및 나바셰바(Nhava Sheva)항 지점을 두고, 주재원 및 현지 직원 100여명이 인도 지역의 화물유치 영업, 선박운항, 각종 기기 관리 및 선적 서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1995년부터 인도 뭍바이에 지점을 개설하고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면서 인도에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영업망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올해 초에는 인도지역 벌크화물 영업 강화를 위해 본사에서 주재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인도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이번 인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이 지역 공략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영업 전략을 설립·추진하고, 미래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인도의 잠재고객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5월부터 대만의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oration)과 싱가포르의 사무데라(Samudera Shipping Line)와 공동으로 1,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하여 인도-중국간 항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 법인 설립을 계기로 영업력을 대폭 강화하여 2004년 7만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인 컨테이너 수송량을 2010년에는 100% 늘어난 15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노정익(盧政翼) 사장은 『인도는 남한의 33배에 이르는 거대한 국토와 10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내수시장 및 최근 개방정책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로 머지않아 중국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대상선에게는 이곳 인도가 바로 '블루오션'이라며 『물동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유망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인도 법인을 설립하는 만큼 앞으로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번 인도법인 설립으로, 미주, 유럽, 중국, 동서남아 등 4개 지역본부 외에 23개 해외법인 67개 지점 6개 사무소의 명실상부한 글로벌한 세계 영업망을 갖추게 되었다.

현대상선의 인도법인 설립은 떠오르는 미래 해운시장인 인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중국 효과'로 수익성을 높인 전 세계 해운기업들은 '인도 효과'를 누리기 위해 앞 다투어 인도로 향하고 있다. APL, MOL, Evergreen, Yang Ming 등 주요 해운기업들이 인도를 기항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해운기업의 지점 및 대리점이

인도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 현재 인도에 현지법인 둔 해운기업도 10여개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현대상선이 1995년 인도 뭄바이에 지점을 설치한 이래, 16일 처음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처럼 주요 해운기업들이 인도에 몰리는 이유는 인도가 매력적인 해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영국의 오랜 식민 생활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 위주의 자급자족형 구조로 인해 경제발전 한계를 드러냈다. 80년대 말에는 각종 보조금의 증가, 공기업 적자 등으로 정부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해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 올해는 세계 경제 회복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oldman Sachs는 BRICs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도경제가 2000년~2050년 동안 연평균 5.7%의 고도성장을 이룰 것이며 2016년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019년에는 프랑스, 2023년에는 영국, 2032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인도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화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1995년 1.5억톤에 불과했던 수출입 물동량이 2007년 약 5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시아-유럽을 잇는 관문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아시아-유럽간 항로와 연계될 경우 이 구간 화물수송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최대교역국인 미국과는 지구상에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 동안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을 거쳐 미주서안에 이르는 것

과 인도 서안을 통해 유럽-대서양을 거쳐 미주 동안에 이르는 것이 비슷하다. 따라서 해운업계는 인도 물량이 증가할 경우 고질적인 동서간 물동량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흥아해운

부장급 이하 승진인사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이 7월1일자로 부장급 이하에 대한 승진인사와 주재원 변경 등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승진] ▲부장대우 : 이석률(인천영업소 CY관리팀), 홍재선(보험팀), 김광규(총무팀), 김명철(인천영업소 업무팀) ▲차장 : 이동옥(재무팀), 곽동현(칼라룸푸르사무소), 박석태(호치민사무소), 김철(수출영업팀) ▲과장 : 문범수(전산팀), 차명주(수입삼국간영업팀), 구상욱(수출영업팀), 조은범(회계팀), 황세원(영업팀), 장계용(자카르타사무소), 윤동식(수출영업팀), 최진섭(공무팀), 김영민(해사팀), 이진철(수입삼국간영업팀) ▲과장대우 : 김상국(업무팀), 박재홍(울산사무소), 류규열(수입삼국간영업팀), 하만기(영업팀), 문제식(영업팀), 이희연(전산팀), 정두고(영업팀) ▲대리 : 안대연(업무팀), 조덕환(인천영업소 CY관리팀), 최승혁(수출영업팀), 고윤해(전산팀), 안성현(운항팀), 전성현(수출영업팀), 김 현(업무팀), 정세인(전산팀), 황태원(전산팀), 이정준(전산팀), 장유수(안전관리팀), 한동철(운항팀) ▲계장 : 김도윤(기획팀), 손옥혜(기획팀), 강재구(운항팀), 오지현(회계팀), 박정아(컨테이너관리팀), 이장혁(탱커팀), 백성민(탱커팀), 윤승렬(안전관리팀), 홍순익(공무팀), 박진영(안전관리팀), 박성진(업무 심사팀), 임성애(운항팀)

[인사이드] ▲호치민 사무소장 : 김축옥 차장

## 국립해양조사원

박원장 국제지도학대회 참석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종록)은 7월11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코로나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지도학대회(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원은 이번 제22차 대회는 “지도로부터 변화하는 세계 접근”이라는 주제로 26개 분야에서 총 55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국제지도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해양조사원에서는 동해 해도를 비롯하여 총 8종의 해도를 전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지도학대회는 국제 지도(地圖) 학회(ICA)의 주관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서 학술논문 발표 및 지도전시회 등을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된 최신 정보교환 및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지도학대회에 참가하여 지도 및 해도제작에 관해 국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최신 해도제작기술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해난사고 사후조치 세미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대표 이윤재)이 7월14일 부산 중앙동 한진해운빌딩 27층 세미나실에서 선장, 항해사, 운항 및 보험, 해무담당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의 주제는 ‘해난사고 예방

과 사고 후 조치’로, KP&I Club 윤민현 전무(Risk Management 보험이 해결책임가)와 한진해운 김인순 운항팀장(선박안전관리), KP&I Club 최득수 부장(선박사고예방 및 사고 후 조치) 등이 각각 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의 토론이 있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대와 산학협력 체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과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가 7월4일 부산대학교내 상남 국제회관에서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학술자문,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관련 프로젝트 공동 연구개발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견학,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활용 △공단 직원의 교양과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컨부두공단은 컨테이너터미널 통합 운영시스템의 완전자동화 달성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정이기 이사장은 “향후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항만마케팅이 아닌 유비쿼터스 항만과 항만크리스트 구축 등 물류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혁신적인 항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정보교환과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